

$$\div = +$$

코디네이터 · 김외자 님



아무런 바람 없이 나누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디선가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생각 할 것이고 또 나를 통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나는 나누어주려고 하는 사람들과 나눔을 받고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안내자이다.

백혈병이란 무서운 병이 들이닥친 사람과 그들의 가족들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고통을 겪는다. 가족들은 자신들의 조혈모세포가 환자와 맞지 않음을 아파하고 기증자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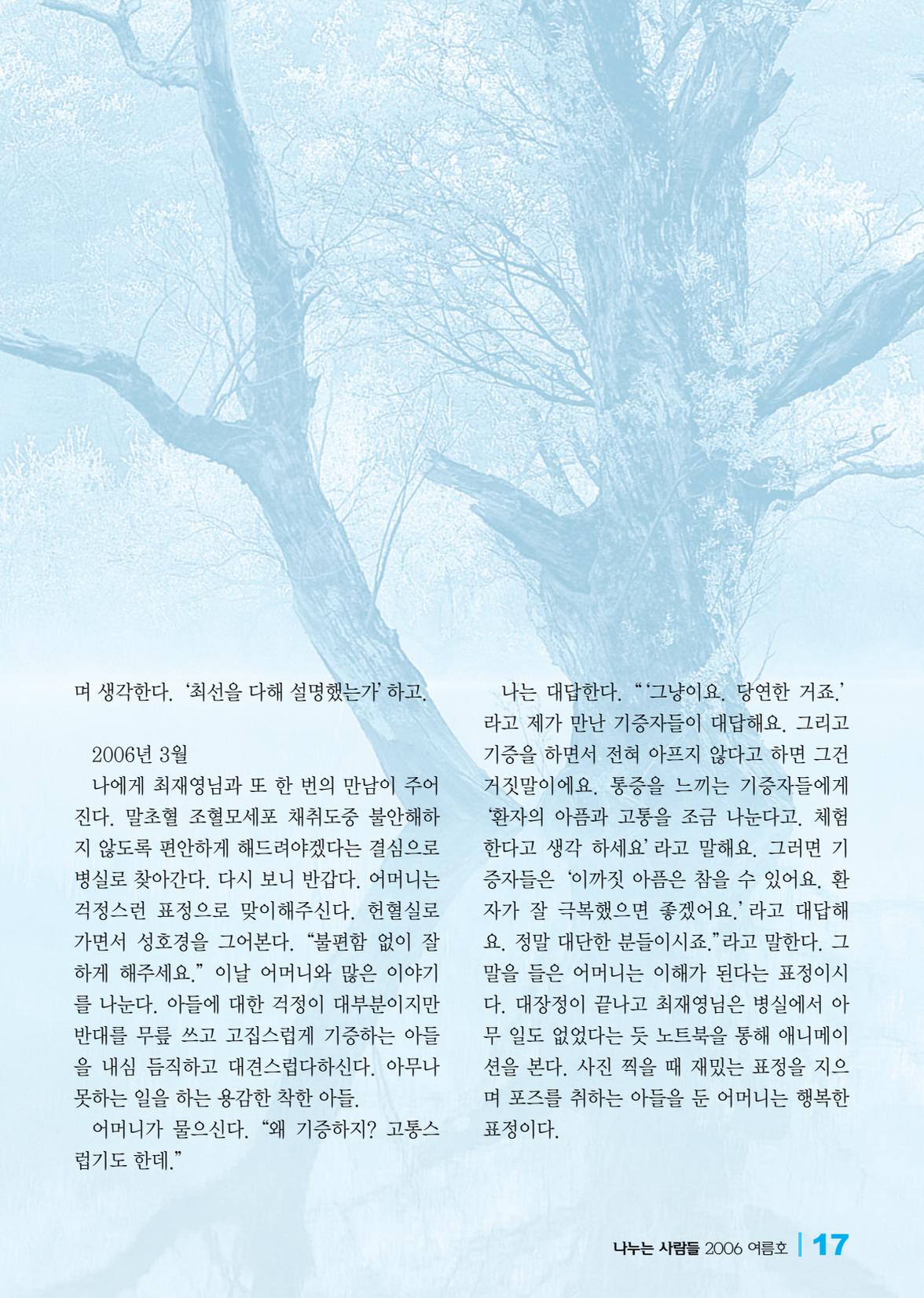
텔레비전에서 병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울고 아파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 맘으로만 잘되기를 기도하고 ARS를 통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한다. 몸소 실천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이 곧 기증자들이다. 나는 그들을 돕는다. 나는 그들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인

생의 길을 만들어 간다. 그들은 아름답다.

2005년 12월

거리에는 눈이 쌓여있다. 길은 미끄럽다. 코끝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바람이 분다. 나는 최재영 님을 만나러 간다. 기증자를 만나기 전에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오늘도 어색하지 않게 분위기를 이끌고, 열린 마음으로 기증자가 편안하게 느끼도록 하는 말솜씨를 주고 나누고자하는 마음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정도. 그 시간동안 기증방법과 절차,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유전자 확인검사를 위해 혈액을 채취한다. 그 와중에 기증희망자 두 명을 만나 신청을 받는다. 비록 많은 이야기를 못 나누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서로에게 행운을 빌



며 생각한다. '최선을 다해 설명했는가' 하고,

2006년 3월

나에게 최재영님과 또 한 번의 만남이 주어진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채취도중 불안해하지 않도록 편안하게 해드려야겠다는 결심으로 병실로 찾아간다. 다시 보니 반갑다. 어머니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맞이해주신다. 현혈실로 가면서 성호경을 그어본다. "불편함 없이 잘하게 해주세요." 이날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눈다. 아들에 대한 걱정이 대부분이지만 반대를 무릎 쓰고 고집스럽게 기증하는 아들을 내심 듬직하고 대견스럽다하신다. 아무나 못하는 일을 하는 용감한 착한 아들.

어머니가 물으신다. "왜 기증하지? 고통스럽기도 한데."

나는 대답한다. "그냥이요, 당연한 거죠." 라고 제가 만난 기증자들이 대답해요. 그리고 기증을 하면서 전혀 아프지 않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통증을 느끼는 기증자들에게 '환자의 아픔과 고통을 조금 나눈다고, 체험한다고 생각 하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기증자들은 '이까짓 아픔은 참을 수 있어요, 환자가 잘 극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대답해요. 정말 대단한 분들이시죠." 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이해가 된다는 표정이다. 대장정이 끝나고 최재영님은 병실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트북을 통해 애니메이션을 본다. 사진 찍을 때 재밌는 표정을 지으며 포즈를 취하는 아들을 둔 어머니는 행복한 표정이다.



금만 용기를 내어 실천해보자.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나를 그 실천의 도구로 써도 좋다. ^^

가끔 사람들이 말한다. “아무것도 얻는 게 없는데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아무런 바람 없이 나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이득을 얻지 못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생명을 살린다는 것은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다. 어디선가 나와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생각 할 것이고 또 나를 통해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 돌고 돌아 결국 더 큰 사랑으로 다시 나에게 돌아올 것이다.

‘때로 엉뚱한 친절과 정신 나간 선행을 실천하라’ 라는 말이 있다. 생각지도 못한 선행으로 타인에게 행복함을 안겨 주라는 말이다. 마음속으로 불타오르고 있지만 망설이고 있다면 조

교통사고로 인해 동생이 의식불명상태인 말로 하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증할 수 없음을 연신 미안하고 다른 방법으로 도울 수 없겠냐면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해주신 김기억님의 누님. 환자가 재발하여 기꺼이 2차 기증에 동의하시고, 고맙다는 환자의 말에 “화이팅!” 이라고 대답하신 어느 기증자님. 공무원 시험에 떨어지고 보란 듯이 무역회사에 입사하신 조양현님. 나의 첫 번째 기증자로 많은 긴장 속에서 나에게 편안함을 준 전근혜님. 신장 기증에 이어 조혈모세포까지 기증해 주신 김용대스님과 전상규님. 표정은 아픈데 말로는 아프지 않다 안심시켜주신 김현중님. 사랑의 리퀘스트 촬영에 임해주신 임원진님과 정택훈님.

2차 기증을 하지 못함에 마음이 아파 울었다는 김후남님. 그 외에 미처 거론하지 못한 많은 기증자들에게 수혜자를 대신해 고개 숙여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마음의 평화가 있길 빌어본다.